



전국 지하철을 무임으로 편리하게

장애인 교통복지카드



* 지하철 무임, 버스 유임

문제점

교통복지카드 발급 지역 지하철에서만 무임승차

- 현재 6개 지자체(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충남)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,
그 외 지역 교통기능 선택 불가
- 발급 지자체(장애인 주소지)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승차 가능,
그 외 지역은 이용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 발권해야 하는 불편*

*예컨대, 부산에서 발급받은 교통복지카드는 서울 지하철 무임태그 불가

개선사항

개선
전

교통수단별 각기 다른 카드 필요 * (예시) 부산 거주자의 경우, 서울로 이동 시

부산
집앞 지하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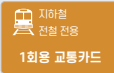
지역 교통
복지카드

부산-서울
기차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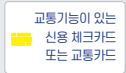
장애인등록증
합인

서울
지하철



장애인등록증 인식하여
1회용 교통카드 발급

서울
버스이용



교통기능이 있는
신용 체크카드
또는 교통카드
이용

한장으로
OK!

개선
후

교통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복지카드 단 한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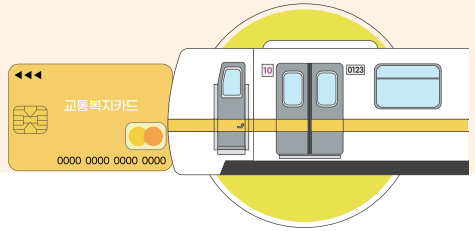


한장으로 전국에서 호환되는

교통복지카드

교통복지+전국 호환

*지하철 무임, 버스 유임



시행 내용

'23. 4. 1 일 ~

- '23. 4. 1.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모두 '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'로 발급됨
-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 중에서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하신 분은 **금융카드형으로 교체 가능**
- '23. 4. 1. 부터 : 서울, 인천, 충남, 부산, 대구, 광주

	대상	시행 일자	신청 가능 범위	신청 방법
기존	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※ 단, 서울/인천/충남지역에서 발급된 금융카드형의 경우, 재발급 필요 없음	'23년 4월 1일부터 가능	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	① 방문 ② 정부24 ③ 복지로 홈페이지 * 위 중 택 1
	신분증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	'23년 4월 1일부터 가능* * 서울, 인천, 충남, 부산, 대구, 광주	본인 직접 신청	
신규	최초 복지카드 발급자 중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	'23년 4월 1일부터 가능	본인 직접 신청	방문 ※ 장애인통합복지카드(8형) 신규 신청자의 경우, 주민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
※ 금융카드형 중 신용카드발급 경우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14조 의거 만 19세 이상 발급가능

※ 금융카드형 중 직불카드(체크카드) 형태의 경우, 만 14세 이상 가능

※ 필수서류: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, 사진 등

* 단,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, 진단서 사진을 활용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없음

※ 대리신청범위: 법정대리인,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, 형제자매,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

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신청/재발급 방법

- **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**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·재발급 가능
- 재발급 또는 '지역교통카드' 보유하고 있는 경우, 교통복지카드 배송 즉시
기존카드 회수 또는 교통기능 정지
-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으로 함.
※자동이체 설정과 관련하여 통장사본 제출 불필요, 발급신청 후 신한카드사의 본인 계좌검증 과정이 별도로 진행됨
- 신용카드 신청자의 경우, 대금 결제계좌는 시중 은행에서 모두 가능함.



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**읍면동 주민센터** 혹은 **복지로 콜센터(☎129)로 문의**주세요



보건복지부
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

한국장애인개발원
Korea Disabled people's Development Institute